

# 지진구와 지진의례

건물지 지진의례를 중심으로

오샛별

용인대학교 고고학과 석사 졸업, 고고학 전공

pyule2@naver.com

- I. 머리말
- II. 지진유구의 채 유형
- III. 건축 단계와 지진구
- IV. 지진유구·유물의 의례 형태 검토
- V. 지진구·지진의례에 반영된 사상적 기반
- VI. 맺음말

## I. 머리말

고대·중세 건물들은 주거생활의 기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방식과 사상, 지향하는 바와 같은 관념적인 요소들도 반영되어 있다. 건물지 발굴조사를 하는 중에 조그만 구덩이 안에 보호 덮개가 덮인 토기·도기·자기질의 호(壺)나 병(甁)이 매납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지진구(地鎮具)라고 한다. 지진구는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낼 때, 또는 농경지나 무덤 등을 만들 때 땅의 기운을 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땅에 묻는 의례용 유물을 말한다. 이러한 지진구가 확인된 유구를 지진유구(地鎮遺構)라 한다. 자연에 의지하여 생활하던 구석기시대를 지나 농경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착하여 살아갈 농경지나 집터 등을 조성하게 된 신석기시대부터 지진구가 확인되며, 이를 통해 땅에 대한 신앙과 제의 행위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이후 국가와 사회가 형성·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땅을 훼손시키는 크고 작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때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대지나 건물이 들어설 장소 중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곳에 지진구를 묻는다. 이는 자연상태의 땅을 훼손시키기에 따라 지신(地神)의 노여움을 사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곡물 등의 내용물을 담은 지진구를 봉납(奉納)함으로써 지신, 곧 땅을 달래고자 했던 의례 결과물이라 하겠다.<sup>2)</sup>

최근 건물지 발굴조사의 증가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시기의 고고학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지진유구 및 지진구 자료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진구의 기종·매납 위치 및 매납방법 등의 변화과정을 파악해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 요소에 반영된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건축과정에서 행해졌던 의례에 담긴 사상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진구 매납의 본래 목적과 의미라 할 수 있는 의례적 관점에 주안을 두고, 건축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지진의례의 의미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1) 李相吉, 「青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박사학위논문(2000a), 65-67쪽.

2) 김길식, 「지진구(地鎮具)와 국토개발」, 『龍仁春秋』(2012. 5), 4쪽.

## II. 지진유구의 제 유형

### 1. 통일신라시대 이전의 지진구

땅에 대한 신앙과 제사행위를 집 또는 건물을 지었거나 지을 자리에 그 터를 관장하는 지신(地神)이 깃들어 있다고 믿음으로써 시작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관련의 산물로서 초기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부터 주거지 내에서도 지신과 관련된 지진의례의 흔적이 확인된다. 대전 상서동 유적<sup>3)</sup>에서 조사된 건물지의 2호 기둥 구멍에서 즐문토기 구연부편 1점, 4호 기둥 구멍에서 즐문토기 동체부편 2점이 출토되었다. 이는 기둥을 세우기 전에 행해진 지진의례의 일환으로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인 진주 대평리 어은 1지구의 77호 주거지<sup>4)</sup>의 경우 초석 아래에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유물을 따로 매납하였다. 또 다른 청동기시대의 유적인 사천 이금동 유적<sup>5)</sup> 60호 대형건물지의 정중앙에 위치한 주혈 내에서 단도마연소호(丹塗磨研小壺)와 발(鉢)이 출토되고, 건물지 서쪽에 위치한 주혈의 상부에서도 토기 저부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기둥 아래에서 토기가 확인되는 경우를 모두 지진구로 볼 수는 없다.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주혈과 기둥 사이에 토기편을 끼워 넣는 경우나, 초반의 역할로서 토기가 기둥을 받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신석기-청동기시대 주거지 기둥 아래에서 확인된 지진구는 특정 부분의 토기편만 확인되거나 표면에 그을음이나 고의로 훼손한 흔적들이 확인되므로, 지진구 매납의 시원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선사시대에는 땅을 주관하는 지신이 자연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며, 삼국시대 이후가 되면 지신에 대한 관념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강력해져 지진의례가 더욱 성행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지진의례의 형태도 다양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忠南大學校博物館, 『大田上書洞遺蹟』(2006), 忠南大學校 博物館叢書 第29輯, 21-22쪽.

4)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거례와 함께한 쌀 - 도작문화 3000년』(2000).

5) 慶南考古學研究所, 『泗川 梨琴洞 遺蹟』(2003), 130쪽.

## 2. 통일신라-조선시대 지진유구·지진구 현황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지진유구·지진구를 각 유구의 건축 단계에 따라서 유형 분류에 앞서 먼저 지진유구 및 지진구가 출토된 유적의 시기, 지진구 용기·보호 덮개·내용물, 지진구의 매납 위치 등을 표1로 정리하였다.

유적의 존속 시기 파악은 지진구로 사용된 용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였다. 지진구로 사용된 용기는 유개합(有蓋盒)·광구병(廣口瓶)·도기호(壺)·백자호 등 다양한 재질과 기형이 확인되었다. 용기를 보호하는 덮개시설 또한 토기·도기·자기 등의 뚜껑이 사용되거나, 기와편을 보호 덮개로 전용(轉用)하여 사용된 경우가 있다. 지진구의 매납 위치는 크게 다섯 가지로 기초시설, 기단, 적심, 마당, 담장과 문지로 나누어진다. 내부·인접·인근의 의미는 주변 건물지와 떨어진 간격을 나타낸다. ‘내부’는 지진구가 건물지 유구 안에 매납된 것이며, ‘인접’은

표1-통일신라-조선시대 지진구 현황

번호	유적명	시기	지진구				전거
			용기	보호 덮개	내용물	매납 위치	
1	경주 북문로 1-92번지 유적	7세기 전엽	유개파 수부호	인화문뚜껑	견과류, 천석 5개	적심 내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
2	경주 황남동 194-11·12번지 유적	7세기 중엽	연질소호, 인화문 유개합	토기뚜껑, 인화문뚜껑	유리 구슬	기초시설 내부, 적심 인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
3	경주 황남동 123-2번지 유적	7세기 중후엽	인화문 유개합	인화문뚜껑	황철	적심 인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4	경주 성건동 342-17번지 유적	7세기 말	광구병·호, 유개합	인화문뚜껑		적심 인근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5	경주 서부동 4-1번지 유적	8세기 전엽-중엽	인화문 유개합	인화문뚜껑, 기와		적심 인근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6	경주 노서동 160-11번지 유적	8세기 전엽-후엽	대부원	기와편		기초시설 내부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8	경주 동천동 774번지 유적	8세기 전엽-후엽	인화문 유개합	인화문뚜껑		적심, 담장 사이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9
9	경주 동천동 793번지 유적	8세기 전엽-후엽	대부원	-		적심 내부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10	경주 동천동 92-3번지 유적	8세기 중엽	인화문 유개합	인화문뚜껑		기단 내부	성림문화재연구원, 2006
11	경주 건천리 유적	9세기 이후	유개합	토기뚜껑		기단 내부	성림문화재연구원, 2010

번호	유적명	시기	지진구				전거
			용기	보호 덮개	내용물	매납 위치	
12	전 인용사지	8세기 후엽	도기병·호	도기완, 기와편		기단 내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13	경주 사정동 70-5번지 유적	7세기 후엽	연질소호, 인화문 유개합	도기뚜껑, 인화문뚜껑		담장 내부	성림문화재연구원, 2011
14	울산 상북 유적	8-9세기	유개호, 유개양이부호, 유개합	도기뚜껑		문지 내부, 담장 인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15	거창 임블리 천덕사지	10-13세기	광구병	기와편	천석 3개	담장 인근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1988
16	칠곡 연화리 유적	10세기 말-13세기	도기호	-		적심 인접	대동문화재연구원, 2010
17	영월 하송리 유적	10세기 추정	도기병	-		기단 내부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18	여주 고달사지	10세기 후엽	도기병·호	기와편	미상 철제품	중정, 기단 내부	기진문화재연구원, 2007
19	연기 연거리 유적	11세기 말	분청 사기호, 도기호	-		기단 내부, 중정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20	대전 상대동 중동굴 유적	10-12세기	이면편병, 도기병·호	수막새		기단 내부, 미당	백제문화재연구원, 2011
21	이천 증포동 유적	10세기 말	도기병·호	-		중정 석열 인접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22	용인 유운리 유적	10세기 말-13세기	사이호, 장동호	-	숯	중정 중앙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23	대전 상대동 원굴 유적	11-12세기	도기병·호	-		중정 중앙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24	울산 연암동 유적	11-12세기	양이부호, 도기호	-		미당 석열 인접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25	김해 봉황동 유적	11-12세기	분청사기완·접시, 도기병, 주구병	분청사기 뚜껑		초석 아래, 중정 중앙	경남고고학연구소, 2007
26	양산 북정동 유적	11-12세기	도기병	-		중정	한국문화연구원, 2010
27	부여 왕흥사지	11-12세기	도기호	청자접시		담장 내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2
28	경북궁 광화문지	14세기	분청사기호, 도기병	백자접시, -		담장 인근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29	대구 매호동 유적	14-15세기	도기호	분청사기발		석열 인접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30	김천 고통 유적	14-15세기	도기병, 백자호	도기발, 백자뚜껑		담장 내부	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2006
31	서울 성곽 유적	15-17세기	백자호	백자접시		담장 인접	서울역사박물관, 2011
32	김해 구산동 유적	15-17세기	도기호	기와편		중정 중앙	동아대학교박물관, 1999
33	나주 외삼문 유적	15세기	흑갈유호	백자접시		기단 내부	호남문화재연구원, 2002
34	연기 연거리 유적	15세기 후엽	도기병	-		미당 석열 인접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35	경산 중산리 유적	15-17세기	도기병	분청사기 접시		적심 인근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36	경북궁 침전지역	19세기	백자소호, 도기호	기와편	수은	기단 내부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95

유구와 닿는 지점에 매납된 것, '인근'은 유구 주변의 가까운 곳에 매납된 것을 말한다.

### III. 건축 단계와 지진구

#### 1. 건축 단계에 따른 유형 분류

건물의 구성요소로는 기초시설에 해당하는 대지·적심(積心)·초석(礎石)·기단(基壇)·벽체시설과 내부시설에 해당하는 구들시설·배연(排煙)시설(연도·굴뚝), 그리고 배수시설·우물·담장지·문지(門址)·화계(花階)·월대(月臺) 등의 외부 부대시설로 나눌 수 있다. 건물의 축조는 대부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일정한 순서에 따른 공정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건물이 축조되는 제 과정에 따라 각 공정별 지진유구를 분류하고, 그 특징에 따라 몇 개의 유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형별로 분류된 지진구의 기종과 매납된 위치가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I 유형은 건물지 내부 초석을 이용한 기초시설에 지진유구를 매납한 형태이다. 건물이 지어질 터를 선정하고 나면, 지면을 깎고 돌우어 집이 앉을 자리와 마당을 평탄하게 만들고 무른 땅을 다져서 탄탄하게 하는 작업이 실시되며, 이는 건축의 첫 번째 단계로 터닦기 또는 개기(開基)라고 한다. 이러한 작업이 행해지는 이유는 지반개량을 위한 것으로 곧 건물의 안정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초(基礎)를 조성하는 것이다.<sup>6)</sup> 건축물의 자중(自重), 적재하중, 풍력, 지진력, 기타의 외력을 안전하게 지반에 전달하는 건축물의 하부 지중구조 부분을 총칭하여 기초라 한다. 건물을 축조하기 전에 할석·천석 등으로 지반의 침하를 줄이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초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수혈을 파서 묻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예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상부에 적심시설이나 초석을 설치하기 전에 지반을 다지는 건축 단계 이후에 행해진 지진의례의 한 가지 형태로

6)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열화당, 1993), 2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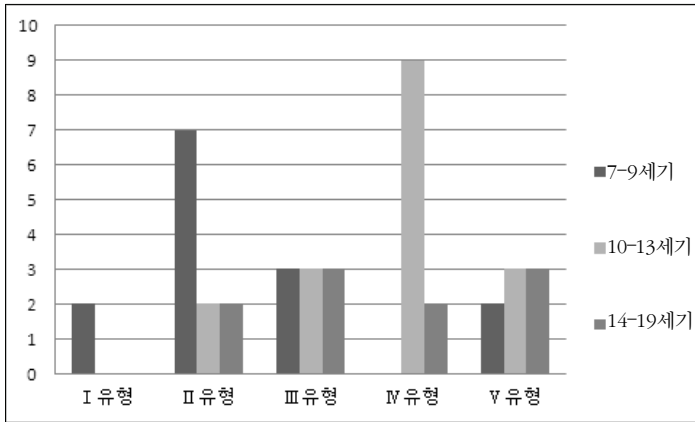


그림1-지진구 제 유형별 시기분포

8세기 전엽-8세기 말엽인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에서만 확인된다.

II유형은 초석의 적심시설 내부나 주변에 매납된 지진유구이다. 적심은 기둥이 올라가는 초석 아래에 시설되는 건물의 기초부로, 기둥에 전달되는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고 지반의 침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터고르기를 한 뒤나 기단을 쌓은 후에 땅을 파고 그 내부를 돌로 채우는 방식으로 축조된다. 적심은 건물의 설계 당시부터 위치와 규모·간격 등이 설정되며, 축조 당시에도 그에 부합하도록 시설된다. 최근 건물지의 발굴조사는 지상의 초석이 없어진 경우 적심석만으로 건물의 규모나 성격을 알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심시설 위에 올려진 초석은 기둥의 하중을 받치는 한편 지면의 습기를 차단해줌으로써 기둥뿌리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적심과 초석을 설치한 후 그다음 단계로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II유형의 지진유구는 적심과 초석시설 완료 후, 기둥을 세우기 전에 행해진 지진의례의 일환으로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III유형은 기단을 가진 건물지의 내부 충전토에서 출토되는 형태이다. 기단은 집터를 잡고 터를 반듯하게 다듬은 후에 터보다 한층 높게 쌓은 단을 말하며, 기초가 마감되는 부분에 기단을 시설하고 그 내부에는 흙(기단 내부 충전토)을 채우거나 10cm 전후의 천석·할석을 채워서 기초부를 견고히 한다. 기단을 쌓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개개의 초석으로부터 전달되는 건물의 하중을 받아 지반에 골고루 전달되게 하고, 둘째,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함과 동시에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예방하며, 셋째, 건물을 지면보다

높게 보이게 하여 건물에 장중함과 위엄, 권위 등을 주기 위한 것이다.

Ⅲ유형 지진구의 매납 양상을 살펴보면, 매납을 위해 수혈을 판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Ⅱ유형에서 적심 인근에 수혈을 판 후 매납한 것과는 달리 기단석의 내부에 지진구를 놓은 후 내부토나 석재를 채워 넣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기단석에 인접한 내부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다.

Ⅱ유형은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기는 하지만 특히 7-9세기의 통일신라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Ⅲ유형 역시 전 시기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면 Ⅱ유형에서 Ⅲ유형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축조과정은 먼저 지반을 삭토하거나, 성토하여 평탄대지를 조성하거나 Ⅰ유형과 같이 할석·천석 등을 이용해서 기반다지기 단계를 실시한다. 이렇게 기반다지기를 한 후, 적심시설을 설치한 후에 적심 내부나 인근에 수혈을 파고 지진구를 묻는 형태가 Ⅱ유형이다. Ⅲ유형은 Ⅱ유형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기단석을 구축하고 기단 내부토와 함께 지진구를 넣거나, 기단을 축조한 후 기단 내부토에 별도의 수혈을 파서 지진구를 매납한 형태이다. Ⅰ-Ⅲ단계는 각 시기별 건축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진의례가 이루어지고 지진구가 매납된 위치도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유형은 중정(中庭)에 지진구가 매납된 경우이다. 중정은 건물 안이나 안채와 바깥채 사이의 마당을 말한다. 전체 건물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석축으로 단을 이루고 있다. 방형의 중정 둘레에 각 동의 건물이 위치하고, 건물지로 들어가는 계단이 배치된다.

지진구로 사용된 기종은 호나 병이며, 보호 덮개가 덮여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구연부가 의도적으로 국부 파손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진구 내부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원래는 보호 덮개가 덮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덮개는 나무나 종이와 같은 유기질제로 추정된다. 또한 2-3점이 세트로 매납된 경우가 많은데, 세트인 경우 1점은 병, 1점은 호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각기 다른 내용물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Ⅳ유형은 고려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매납 유형으로 중정이라는 공간이 전체 가옥에서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납된 위치는 중정의 정중앙이나, 주변 건물 기단의 바닥 부분과



중정이 맞닿는 장소에 매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매납의 형태로 볼 때, 건물의 축조 전이나 축조 중에 지진의례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중정을 중심으로 주변의 건물지가 모두 완공된 후에 전체 건물의 중앙부인 중정에서 지진의례를 행하고 매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I-III유형과는 건축과정 중 지진의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르며, 지진의례의 대상이나 목적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V유형은 담장이나 문지에 매납된 지진유구이다. 담장은 건축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축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장을 축조한 후 내부의 건물지를 축조할 경우에는 건축 재료를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며, 또한 건축 도중에 건물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규모를 수정하기도 번거로우므로 건축의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담장은 개인생활을 보호하는 방어적 개념의 울타리로 방음과 방화, 시선차단 등의 역할을 한다.<sup>7)</sup> 이러한 담장이나 문지의 경우 건물 외부와 내부 공간을 구분하는 의미와 전체 건물을 감싸서 일곽을 형성한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이곳에 매납된 지진구는 건물지 전체에 대한 지진의례라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나타나는 형태로 가옥의 울타리, 즉 외부와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격막으로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지점으로서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생각된다. 담장지 및 문지의 경우에는 문지 내부나, 담장 아래에 매납된 경우에는 I-III유형과 같이 건축과정 중에 행해진 지진의례에 따라 매납한 것이다. 또한 담장 안이나 밖에 따로 수혈을 굴착하고 매납한 경우에는 IV유형과 같이 건축이 완료된 후에 매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건축 단계와 지진의례의 관계

건축의례는 집을 지을 때 건축행위를 신의 뜻이라 생각하여 신의 힘에 의지하고 사고 없이 공사를 마치며 집안의 평안과 번창을 기원하는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행위이다.<sup>8)</sup> 이러한 건축의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헌자료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복거(卜居)나 <성조

7)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도서출판동녘, 2009).

8) A. 반 겐넵 저, 전경수 역, 『통과의례 -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후까지』(을유문화사, 1985), 56-58쪽.

가(成造歌))<sup>9)</sup>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축의례의 각 단계의 의미와 과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증보산림경제』의 ‘복거’에는 ‘어느 곳에 집 지을 터를 보려고 계획한 사람이라면 경솔하게 거처를 정해서는 안 되니, 반드시 풍기(風氣)가 모이고 집터의 앞뒤가 안온한 곳을 살펴 선택하여 영구한 계획을 삼아야 한다’<sup>10)</sup>고 기록하고 있다. 건축은 공정의 순서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건축 단계마다 행해진 의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복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터를 정하는 방법[논지세(論地勢)·논평지양기(論平地陽基)·논산곡양기(論山谷陽基)·상지(相地)·양험(壤驗)·수응(水應)·사응(砂應)·논풍사방(論風射方)·조옥(造屋)], 건축 재료를 고르는 법[택재(擇材)·비와(備瓦)], 건축과정과 건축의례[동토개기(動土開基)·개공(開工)·조서(造序)], 건물의 부속시설인 대문, 길, 담장 및 울타리, 우물, 부엌, 창고(裝門·取路·牆籬·天井·作竈·倉庫) 등을 축조하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다.

『증보산림경제』의 ‘동토개기’에는 건축에 앞서 행해지는 건축의례로 개기제(開土祭)에 대한 기록이 있다.<sup>11)</sup> 집에는 집을 관장하는 지신이 있다고 여기는데, 이는 대지 및 특정 지역 토지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초자연적 힘을 인격화해서 신앙함으로써 형성된 개념이다. 땅에는 땅의 신이 있다고 믿고 자연 만물에는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한 관념으로부터 지신에게 집터를 새로 마련하고 땅을 파헤치고 다지고 집을 짓게 되었으니 미안하다는 뜻을 고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지내는 의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신의

9) 〈成造歌〉는 가옥 건축의 기초공사와 상량제, 준공식 때 부르는 노래로서, 지신밟기나 터다지기, 땅다지기, 지경뒹기, 성주풀이, 안택가 등으로 불린다. 김성배, 「한국성조가의 연구」,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13집(1974); 권종남, 「성조가에 나타난 전통주택건축의 내용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9).

10) 『增補山林經濟』卜居. “凡有卜築一區之計者不可率爾之居必先番擇其風氣之藏聚面背之安穩以爲永久之.”

11) 『增補山林經濟』動土開基. “開基營屋之時主人必擇地運年運金樓四角無所拘忌然後, 始用上舛吉日夜間, 精備酒果脯醢香燭撰文祭告於土地之神方.”

[터를 닦고 집을 지을 때 주인이 반드시 지운(地運)과 연운(年運)을 가려서 금루사각(金樓四角)에 구애되어 꺼리는 바가 없게 된 연후에 비로소 상천길일(上舛吉日)의 야간에 제물(酒果脯醢)과 향초(香燭)와 제문(祭文)을 정밀하게 준비하여 토지신에게 제사 지낸 다음에야 흙을 다룰 수 있다.]

례는 건축하기 전에 건물이 세워질 대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지진의례의 흔적을 고고학 자료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지진구의 제 유형 중 I-III유형은 건물의 기둥이 올라가기 전에 행해진 의례에 해당되며, 정초 단계 이후에 건축의례를 한 후 매납한 것이다. 개토제를 지낸 다음 집터를 고르거나 기단을 쌓는 작업이 끝나면 기둥을 세울 자리에 주춧돌을 놓는 정초 작업을 한다. 주춧돌을 박는다는 것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땅(토지신)을 판 혈(穴)에 아버지의 씨앗을 상징하는 주춧돌을 박아 성주신을 잉태한다는 상징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초과정은 땅과 주춧돌의 관계, 즉 음양의 조화에 의하여 '집'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춧돌이라는 자연물에 암수 중 수컷이라는 상징적 생명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연물에 대한 기와 생명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로, 건물의 기둥은 뼈대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골격을 세우기 전에 지반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의례를 행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IV유형은 주로 10세기 이후인 고려시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중정은 건물지의 중심부라 할 수 있으며, 건물의 중앙부에서 의례를 한 후에 매납된 것이다. 이 유형은 사상적인 변화로 새로 등장한 유형이며,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풍수지리설의 체계화와 유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동서남북의 사방위와 중앙이 지닌 의미가 부각된 것은 음양오행설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납 형태라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양사상의 중심성은 궁극의 화합을 위한 일원적인 조화와 균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음양의 성격이 마당의 공간 해석에도 적용된다. 땅은 음을 나타내지만, 하늘로부터 양기가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중앙에 위치하는 중정은 하늘의 기운을 받은 곳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건물이 땅속의 생기인 지기(地氣)를 받는 곳이라면, 중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기인 천기(天氣)를 받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음양(陰陽)이 조화를 이루어야 만물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믿음으로 볼 때 건물과 마당은 각기 땅과 하늘의 기운을 받는 장소라고 생각되었을 것이다.<sup>13)</sup> 이러한 의미를 가진 중정에 구덩이(穴)를 파서 용기를 담아두는

12) 윤원태, 『한국의 전통 초가』(재원, 1998), 36-37쪽.

13) 강영환, 『집의 사회사』(웅진출판, 1992); 李應熙·李重雨, 「東洋思想의 中心性을 통하

행위인 지진구의 매납의례를 거행함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V유형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지진구의 매납 형태이며, 담장이나 문지 등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되는 지점에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나쁜 기운으로부터 집과 집터를 보호하거나 악귀(惡鬼)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벽사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담장과 문지로 이루어진 건물은 담장과 문지에 의해 안과 밖이 구별되고 분절된 독립공간이 형성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진의 의미를 가진 건축의례의 몇 가지 유형 외에도 입주(立柱), 상량(上樑)고사, 입택(入宅)고사 등의 건축의례도 있다. 한 건물의 형성과정 중에 지진의례를 비롯하여 여러 단계의 건축의례를 통해 건축하는 장소를 성별(聖別)하였다. 단순히 거주만을 위한 장소로서의 건물이 아닌 외부의 속된 세계에서 분리하여 안락하고 정화된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관념을 지진구 매납과 지진의례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했다.

## IV. 지진유구·유물의 의례 형태 검토

### 1. 지진유구의 배치

지진유구는 건축 단계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지점의 땅을 파서 용기류 등을 매납한 후에 다시 흙을 채워서 메워놓는 형식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 수혈 내에 1점의 지진구가 단독으로 매납되며, 2점의 지진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나란히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4점 이상의 지진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수한 형태로 배치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예로는 경주 왕경유적 S1E1 유적<sup>14)</sup>과 이천 증포동 유적<sup>15)</sup>이 있다. 경주 왕경 S1E1 유적의

---

여 본 傳統住居의 마당空間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지』 79(대한건축학회, 1995), 61-63쪽.

1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1年度 新羅王京遺蹟 發掘調査」, 『年報』 2호(1992).

15)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이천 증포동 유적』, 學術調査報告 第9冊(2011), 57-62쪽.

경우, 담장 옆에 ‘+’자형으로 배치하였으며, 합외 하부에 강돌 등의 자갈이 놓여 있다. 이천 증포동 유적의 중정에서는 단경호 1점과 병 3점 등 도기를 이용한 지진구 4점이 확인되었다. 지진구는 평면 형태가 방형인 중정 내부에서 동서남북 변의 각 중앙에 원형 수혈을 조성하고 매납하여 전체적으로 ‘+’자형 배치이다.

이 외에도 고려시대 왕릉급 고분으로 알려진 강화 능내리 석실분에서는 무덤의 기단부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지진구로 매납된 도기호가 각각 1점씩 모두 4점이 확인된다.<sup>16)</sup> 이는 무덤 내부에서 확인되는 피장자를 위한 부장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며, 무덤이 견고히 지속되고 봉분이 안정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지진구로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sup>17)</sup> 고려시대의 지진구는 일반 건물지 이외에 무덤에도 매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 배치와 같이 4방위를 인식한 특수한 의미를 가진 형태로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의 형태로 중앙과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배치한 경우는 음양오행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음양오행설과 풍수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2. 지진구로 사용된 용기와 보호 덮개시설

지진구로 사용된 용기는 시기별로 각기 다른 기종이 사용되었다. 7세기부터 9세기에 이르는 통일신라시대에는 주로 유개합이 지진구로 사용되었으며, 10세기부터 13세기인 고려시대에는 병이나 호류가 사용되었다. 14세기부터 19세기인 조선시대에는 도기나 백자호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종들은 각 시기마다 널리 사용된 기종으로 지진구로 사용된 용기들은 의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제작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용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례는 공적(公的) 의례와 사적(私的) 의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공적 의례는 국가나 사회와 관련된 의례이며, 사적 의례는 개인과 관련된

16) 國立文化財研究所, 『江華 高麗王陵』(2007a), 354쪽, 368-371쪽.

17) 봉토 내에서 제사 흔적이 발견되었을 경우, 분묘 축조과정 중 행한 제사행위인 봉토제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출토된 유물이 제사 후에 사용했던 제기를 폐기한 것인지, 지신(地神) 등과 같은 신에게 바친 지진구인지는 유물의 출토상태나 매납양상의 분석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의례이다. 지신과 관련된 의례 중 사직제(社稷祭)는 공적 의례에 속한다.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시고 국가의 안녕과 농사의 풍성함을 기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대규모의 의례이며, 사직제에 사용하는 기물들은 모두 의례용으로 따로 제작되어 사용된다. 이에 비하여 개별 건물의 건축의례와 관련된 지진의례는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에서 행한 의례이기 때문에 사적 의례로 분류된다. 사직제와 다르게 별도로 제작된 의례용기가 사용되지 않고, 일상에서 사용하던 용기가 대용(代用)된 것으로 보인다.

지진구는 대부분 수혈을 굴착한 후 매납된 형태로 확인되며, 매납된 후에 용기 상부에 돌이나 흙으로 덮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 덮개가 함께 출토된다. 덮개로 사용된 것의 재질은 토기류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와류, 청자류, 백자류, 도기류, 석재류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본래 뚜껑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백자접시나 기와류도 많은 수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지진구는 용기뿐만 아니라 보호 덮개도 전 시대, 전 지역에 걸쳐 일상생활 용기를 지진구로 대용하여 사용한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축 관련 지진의례가 생활과 밀착된 의례행위로서 자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덮개가 함께 출토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는 애초에 덮개가 덮이지 않은 채 매납된 것이 아니라, 나무나 종이, 직물 등과 같은 유기질제를 사용하였으나 오랜 세월이 흘러서 부식되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태안 마도 2호선에서 도기매병에 나무뚜껑이 덮인 상태가 조사된 예<sup>18)</sup>로 보아 유기질제의 덮개가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 덮개는 대부분 일상생활 용기가 대용된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용기가 아닌 기와가 전 시대 동안 높은 비중으로 보호 덮개로 사용된 점은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기와가 1점만 보호 덮개로 사용된 경우도 있으나, 뚜껑과 세트를 이루는 지진구 위에 기와류가 추가로 덮인 상태로 출토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아 기와가 보호 덮개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기와를 지진구 상부에 덮은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지진구 자체가 가옥의 상징물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와는 지붕에 씌워 눈과 빗물의

1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 2호선 수증발굴조사 보고서』(2011), 221쪽, 231쪽, 328-329쪽.

침수를 차단하고 이를 흘러내리게 하여 지붕 재목의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의 경관과 치장을 위하여 사용된다. 즉, 건물의 상부 지붕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기와가 덮인 지진구는 집의 축소형으로 상징된다. 이러한 상징물을 안전한 위치에 매납함으로써 건축물에 안녕을 기원하였던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출토 예가 많지 않아 아직 확실한 의미로 개념화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지진용기의 의도적인 국부 파손

파손된 지진구들은 대부분 구연부가 파손되어 있었는데, 지진구가 안치된 수혈 내에서나 주변에서 구연부의 파편이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의도적인 파손 후에 매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병이나 호인 경우가 많으며, 기물의 구연부 파손으로 내부에 내용물을 용이하게 담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손의 양상은 지진구에 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의례에 사용된 유물에서도 이러한 흔적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훼손(毀棄)<sup>19)</sup>토기라 일컬어지는 유물들은 완형(完形)으로 제작된 토기의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깨뜨려 떼어낸 것을 의미하며, 훼손행위는 의례의 한 가지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의례는 선사시대부터 이루어져왔다. 특히 청동기시대에는 환호나 구상유구, 생산시설 혹은 노지 등에서 의례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예가 확인된다.<sup>20)</sup>

원삼국시대의 분묘에서는 목곽을 불에 그을리거나 의도적으로 무기를 훼손한 흔적이 관찰된다. 고의로 무기를 훼손하여 무덤 속에 부장하는 행위는 최근의 발굴조사 자료로 볼 때 남해안 지역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황남대총 남분<sup>22)</sup>을 비롯한 삼국시대의 많은 고분에서도 부장품을 훼손하여 버린 것으로 보이는 훼손 유물이 많이 확인된다.

서울 풍납토성 무물터에서 층층이 쌓인 채 확인된 200여 점의 토기의

19) 헐거나 깨뜨려서 버린 것을 의미한다.

20) 이상길, 「青銅器 埋納의 性格과 意味: 馬山 加浦洞遺蹟 報告를 檢하여」, 『한국고고학보』 42호(2000), 44쪽.

21) 하승철, 「IV. 고찰」, 『거제 장목 고분』(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22)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南墳)』(1994), 42-45쪽.

구연부가 의도적으로 파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토기들은 한 번에 매납된 것인데 그 시점은 우물을 축조하던 시점으로 추정되며, 일종의 지진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토기들이 백제 지방산임을 감안하면 중앙과 지방세력이 함께 참여한 모종의 제의가 이 우물에서 치러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성백제 중앙세력이 지방세력을 서울로 불러 모아 제사를 지낸 뒤 복속의례 차원에서 토기를 매납한 것이라고까지 해석하기에 이를 만큼 훼손행위와 관련된 의례는 일반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23)</sup>

국립경주박물관 관내에서 발굴된 통일신라 우물에서도 토기의 구연부를 일부러 떼어낸 병 등 무려 460여 점의 토기와 기와가 출토되었다.<sup>24)</sup> 우물에서 출토된 다량의 유물은 우물이 의례의 장소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여 논티 유적은 산정상부 사면에 위치하며, 타원형 혹은 부정형 수혈이 확인되는데, 이 수혈은 당시 지표상의 자연요철면을 이용하거나, 구덩이를 파고 토기나 철기를 파쇄하는 의례행위가 시행되었던 장소로 보인다. 제사행위의 내용은 곡식을 담은 용기를 주먹돌 크기의 천석을 던지거나 용기를 뗏돌에 부딪쳐 깨는 파쇄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는데, 농경신에 대한 의례로서 곡식을 담은 토기를 천석을 이용하여 깨는 파쇄의례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sup>25)</sup>

이 밖에 토기 외에도 훼손된 와당(瓦當)<sup>26)</sup>이나, 훼손된 모조마(模造馬)<sup>27)</sup> 등의 예를 보더라도 파손이라는 행위가 가진 의례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일반적으로 행해진 의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3) 권오영, 「성스러운 우물의 제사 - 풍납토성 경당지구 206호 유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권 2호(역사문화학회, 2008), 216쪽.

24)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부지 내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박물관 학술조사보고 제15책(2002), 207쪽.

25) 국립부여박물관, 『부여구룡우회도로 사업구간 내 부여 논티 제사유적』, 국립부여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12책(2007); 민덕식, 「發掘調査資料로 본 百濟時代의 祭祀遺蹟」, 『사학연구』 제71호(한국사학회, 2003), 36-37쪽.

26) 백중오, 「韓國古代瓦當의 毀棄樣相 檢討」, 『한국사학보』 제43호(고려사학회, 2011), 30-31쪽.

27) 민덕식, 「發掘調査된 祭祀用 模造馬에 대한 分析」, 『사학연구』 제66호(한국사학회, 2002), 32-35쪽; 李尹慧, 「한반도 중남부 지역 출토 儀禮用 模造馬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仁荷大學校 碩士學位論文(2011).



기물의 훼손·훼손은 본래의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행해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례유적에서 훼손된 의례용기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례를 행한 후에 파쇄해버리거나, 땅속에 묻는다. 이는 신성한 의례과정에 사용된 기물이 다른 곳에서 재사용됨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손된 지진구들은 전부 파쇄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또한 구연부나 동체부 일부에만 국부적으로 파손 흔적이 있으며, 정치·매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훼손된 유물과는 성격상 차이점이 있다.

파손행위는 대상을 깨뜨리는 소리에 액(厄)이 도망가거나, 혹은 이를 통해 액을 쫓아버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파손 혹은 파쇄 행위는 액을 없앤다는 제액(除厄)의 의미와 부정(不淨)을 씻는 것을 상징하며, 이러한 의미로 용기의 구연부와 같은 용기의 일부를 깨뜨리는 의례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 4. 지진구의 내용물

지진구는 대부분 수혈을 굴착한 후 대부분 똑바로 세워진 상태로 정치·매납되어 있다. 또한 저부를 수평으로 안정되게 놓았으며, 보호 덮개가 덮여 매납된 것으로 보아 지진구의 용기 내부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진구의 내부에서 내용물이 확인되는 예는 많지 않다. 확인되는 내용물의 종류는 황칠(黃漆), 수은, 유리구슬이나 유리제소옥, 동물 뼈, 견과류, 철제품, 석재 등이다. 다양한 종류의 내용물이 확인되어 유형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우나, 몇몇 경우의 내용물이 지닌 의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지진구에 반영된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황칠, 수은 등은 권위나 위계가 높은 특수 계층의 사람만 소유했던 고급물품이다. 지진용기인 인쇄문유개합(印花文有蓋盒)의 내부에서 확인된 황칠은 황칠나무의 수액으로, 색깔이 노란색이어서 금칠 또는 황칠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와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한국 고유의 특산품으로 삼국시대의 백제지역에서 생산되었다. 당나라 태종이 백제 의자왕에게 사신을 보내 갑옷에 금칠(황칠)을 요청하였다는 기록<sup>28)</sup>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귀하게 쓰이던 도료라 할 수 있다.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사서들에도 이 같은 상황을 전하는 기록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의 중요 수출품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개합에 담긴 황칠도 화학분석 결과 전남 해남의 황칠나무에서 추출된 것으로, 백제지역에서 들여온 물품으로 생각된다.<sup>29)</sup> 신라에 칠전<sup>30)</sup>이라는 관청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칠의 수요와 공급을 국가기관에서 관장하였을 정도로 중시했던 특산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칠은 황칠나무의 수액과 수지를 분리하여 수액은 금칠로 이용하고, 수지는 안식향(安息香)으로 이용하였다는 기록<sup>31)</sup>도 있다. 안식향은 사람을 편하게 하고 여러 종류의 역기(逆氣)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황칠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기능이 있었으며, 그중 역기를 억제시키는 황칠의 기능적 의미가 반영되어 지진구에 담겨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알려진 중요한 물질이었던 수은은 불로장생의 약으로 믿었던 단(丹)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중국 연단술(煉丹術)의 대가 도홍경(陶弘景)은 그의 저서 『본초경집주(本草經集註)』에서 고구려의 연단기술을 칭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벽사의 의미로서 도교와 관련하여 귀중하게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고려 정종 6년(1040)에 아라비아에서 용치(龍齒)·점성향(占城香) 같은 여러 가지 진귀한 의약품과 함께 수은이 수입되었으며<sup>32)</sup>, 선종 때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상인들이 수은·유황·진주 등을 올렸다고 하는 기록<sup>33)</sup>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에서 관리하던 중요한 물품이었음을

28) 『冊府元龜』 卷一百十七 帝王部 一百十七 親征 二[唐太宗 貞觀十九年(645)].

“貞觀十九年初，太宗遣使於百濟國中採取金漆，用塗鉄甲，皆黃紫引曜，色邁兼金。又以五綵染玄金，製爲山文甲，並從將軍。”

[정관 19년 초 (당나라) 태종이 사신을 보내어 백제국에서 금칠을 채취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철갑에 칠하니 모두 황금색으로 빛났으며, 또한 다섯 가지 색을 더하여 의전용 산문갑을 만들었다.]

29) 유혜선, 「3. 유개합 내부 잔류물질 분석」, 『慶州 皇南洞 大形建物址 -皇南洞 123-2番地 遺蹟-』,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총서 53(2009), 81-85쪽.

30) 『三國史記』 第39卷, 5章, 雜誌 8 職官. “漆典 景德王改爲飾器房 後復故.”

31) 『物名攷』. “樹似小櫟而大 六月取汁漆物 黃澤如金 東俗謂之黃 而取其清如油者爲水安息香 乾而作塊爲乾安息香.”; 『本草綱目』 第34卷, 木部, “安息香.”

32) 『高麗史』 靖宗 庚申 6年. “十一月 丙寅 大食國客商保那盍等來獻水銀龍齒占城香沒藥大蘇木等物 命有司館待優厚及還厚賜金帛.”

33) 『高麗史』 宣宗 甲子 元年. “戊子 日本國筑前州商客信通等獻水銀二百五十斤.”; 『高麗史』 宣宗 丁卯 4年. “庚午 東南道都部署奏 日本國對馬島元平等四十人來獻眞 珠水銀寶刀牛馬.”; 『高麗史』 宣宗 己巳 6年. “日本國大宰府商客來獻水銀眞珠弓箭刀劍.”; 『高麗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서도 수은의 여러 가지 사용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sup>34)</sup>,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sup>35)</sup> 등의 기록에는 수은의 갑옷이나 책의 겉면을 치장하는 도금제로 사용되었음을 전하고 있으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sup>36)</sup>나 『동의보감(東醫寶鑑)』<sup>37)</sup> 등에는 약재로도 사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은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경복궁의 침전 기단 지진구의 백자소호에 수은이 담겨 매납된 것은 연단의 재료나 벽사(辟邪) 의미가 반영되어 지진구의 내용물로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구슬은 보석과 같은 귀중품의 일종으로서 팔찌·목걸이 등 장신구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덤의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다. 유리구슬은 경주 황남동 194-11·12번지 유적과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의 지진구로 사용된 연질소호의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3점의 지진구에서 각각 22점, 26점, 17점씩 확인되었으며, 색깔은 연녹색이나 연갈색이다. 구슬의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중앙에 원형투공이 있으며,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전체 크기에 비하여 투공 크기가 큰 편이다. 목걸이나 팔찌 등의 완성된 장식품으로서 매납된 것일 수도 있으나, 구슬의 개수는 20여 점 정도만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구슬이 지닌 의미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구슬에 있는 투공은 구슬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며, 구슬들은 끈으로 연결되어 매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길게 서로 연결된 구슬들은 건물의 영속을 기원하는 주술적<sup>38)</sup>인 의미로

史』宣宗 癸酉 10年. “秋七月 癸未 西海道按察使奏 安西都護府轄下延平島巡檢軍捕海船一艘所載宋人十二倭人十九有弓箭刀劍甲冑并水銀眞珠硫黃法螺等物必是兩國海賊共欲侵我邊鄙者也其兵仗等物請收納官所捕海賊並配嶺外賞其巡捕軍士從之.”

34) 『朝鮮王朝實錄』太祖 15卷, 7年(1398 戊寅). “金銀及水銀, 皆非本土所產, 而銀器鍍金之金, 至改造. 其金與水銀, 一皆無面, 銀亦品惡, 有弊無益. 除品帶外, 一皆禁斷, 已曾鍍者不禁.”

35) 『備邊司謄錄』英祖 37年(辛巳十月二十九日). “亦禁塗水銀, 況此乎.”

36) 『承政院日記』仁祖 4年 丙寅(1626) 閏6月 6日(丙午). “戶曹啓曰, 今次冬至·聖節兩行次, 尙衣院年例貿易唐物各種內, 黃金·水銀·朱紅·三青·二青·同黃·深重青紅象毛·砒礪·荷葉·三碌·及內醫院貿易藥材, 龍腦·水銀等物, 皆係本曹儲在之數, 故不爲貿易之意, 敢啓. 傳曰, 知道.”

37) 『東醫寶鑑』內景篇, 神部, 單方. “水銀, 安神又云定心藏之煨盃驚悸.”; 湯液編, 金部 “水銀, 性寒味辛有毒安心鎮神除風主疥癬癩癰癩白禿一切惡瘡墮胎下死胎, 一名汞出於丹砂卽汞也殺金銀銅錫毒.”

38) 서양에서도 구슬이란 의미의 'Bead'라는 말은 고대 앵글로 색슨의 말(고대영어)로 biddan(기도하다)과 bede(기도자)에서 유래되었다. 구슬이 원래 주술적·신앙적 목적으로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부터 우리는 신성한 의례용품으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황칠이나 수은, 유리구슬과 같이 특수 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내용물 외에 견과류·숯·천석 등과 같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물도 확인된다. 내부에 견과류와 열매 껍질 성분이 검출된 예는 저장시설로 보고된 경우도 있으나, 지진과 관련된 어떤 의미가 반영되어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견과류와 함께 들어 있는 천석은 견과류의 껍질 제거나 건물을 안정되게 가라앉힌다는 의미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출토된 예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조선 후기의 풍속이 기록된 문헌인 『해동죽지(海東竹枝)』<sup>39)</sup>에 옛 풍속으로 정월 대보름날 호두와 잣을 깨물어 부스럼이나 종기를 예방하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도 예부터 견과류가 민속의례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견과류와 천석이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있는데, 견과류를 천석으로 깨뜨림으로써 액운을 방지한다는 벽사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동시에 무거운 돌로 안정되게 가라앉힌다는 의미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는 앞 장에서 서술한 인위적 훼손과 같이 제액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숯은 기본적으로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하지만 외부 이물질에 대한 흡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거나 장을 담글 때 함께 넣는 등의 용도로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제습기능이 있어 전통 건축물 내부나 기단을 다질 때 숯을 섞어 습한 기운을 막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숯은 전통적으로 재액(災厄)과 사기(邪氣)를 막는 물질이었다. 한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태어나면 원새끼에 숯을 쫓아 부정한 사람과 액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새로이 장을 담가 항아리에서 숙성할 때도 금줄과 함께 숯을 사용하였다. 부엌에 모신 조왕신에게 고사를 지낼 때도 제물과 함께 숯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sup>40)</sup> 이러한 예를 보아 숯은 건축재료 중 한 가지로 지진구 안에 매납되었을 수도 있으며, 나쁜 기운을 막는 의미로도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물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예가 더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내용물로 유기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9) 『海東竹枝』. “祓除瘡瘍大嚼破，爭如金荔枝百千顆，春來好得如來緣，萬戶福田因因果.”

4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2011), 347쪽.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지진구 내부에 이물질·산화물·유기물 등이 남아 있었다고 보고된 경우가 있어 내부에 유기음식물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드물어 어떤 내용물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신이나 가택신앙은 민간신앙의 형태로 이어져오고 있는 지신단지 등의 민속자료를 통하여 지진구의 내용물을 짐작해볼 수 있다. 터주·성주신·성조신·상량신 등은 지신 중의 하나인 택지신(宅地神)으로 그 신체(神體)는 대개 향아리에 매년 새로 농사한 쌀이나 콩·팥을 같이 넣거나 봄가을로 걸보리와 벼를 번갈아가며 담아두기도 하고, 짚주저리를 씌워 뒤뜰 장독대 근처에 놓아둔다. 이는 지신이 집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한다고 믿으면서, 신을 잘 모셔야 집터가 안정되어 집안의 일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관념으로 행해졌는데<sup>41)</sup>, 이를 보아 지진구 내부에는 주로 쌀이나 콩·팥·보리 등과 같은 곡물류가 담겨서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쌀을 비롯한 곡류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히 먹을거리 이상의 문화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땅에서 얻은 곡물을 다시 지신에게 봉헌함으로써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건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지진구의 내용물을 살펴본 결과, 황칠이나 천석·숯과 같이 건축의 부재로 사용하는 것을 매납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은·유리구슬·견과류 등과 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을 매납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내용물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곡물 등 유기음식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지진구를 매납하는 의례는 정형화되어 단일형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시기나 지역의 습속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용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나, 각각의 내용물이 지닌 의미가 건물의 영속이나 안녕을 기원하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4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강원도 편』(2006a); 『한국의 가정신앙: 경기도 편』(2005);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남도 편』(2007b);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북도 편』(2007c); 『한국의 가정신앙: 제주도 편』(2007d);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남도 편』(2006b);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북도 편』(2006c); 김명자, 「경기 지역의 터주신앙」, 『역사민속학』 9(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169-187쪽; 이영진, 「주거민속을 통해 본 주거공간의 영역화」, 『비교민속학』 제32집(비교민속학회, 2006), 77-78쪽.

## V. 지진구·지진의례에 반영된 사상적 기반

매납유구(埋納遺構)라는 것은 광의의 의미로 구덩이를 판 후 무언가를 넣은 것을 말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땅을 파서 무언가를 묻어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납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유물을 의도적으로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2)</sup> 따라서 매납이라는 행위의 이면에는 자연히 종교·신앙적인 배경이 깔려 있기 마련이다.

건물지의 기초시설·적심시설·기단부·중정·담장·문지 등에서 출토되는 지진구는 이러한 매납의례의 결과로 남겨진 매납유구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으며, 지진구를 매납하는 지진의례에 당시 사람들의 사상과 관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집 짓는 과정에서 행하는 건축의례는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보다 풍수사상·도참사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풍수사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풍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탈해왕<sup>43)</sup>에 관한 대목에 ‘산에 올라 현월형(弦月形)의택지를 발견하고 속임수를 써서 그택지를 빼앗아 후에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시대에 도입된 풍수사상은 신라 말기부터 유행하여 고려시대에 전성기를 이루어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시대의 문헌사료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상택지에서는 글자 그대로 집을 지을 터를 찾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상택(相宅)의 상은 살펴본 다라는 뜻이고, 택은 ‘집’으로 ‘상택’이란 ‘집터를 살펴 고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sup>44)</sup> 이는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일반 백성들의 주거지를 살펴 정하는 일을 의미했는데, 후대에는 주택의 자리를 정하는 하나의 주술적 의미로 인식하였고, 현재에도 ‘풍수를 본다’, ‘집터를 점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풍수(風水)는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하여 땅에 관한 자연이치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풍은 바람, 즉 기후와 풍토를 가리키

42) 李相吉, 「青銅器 埋納의 性格과 意味: 馬山 加浦洞遺蹟 報告를 檢하여」, 『한국고고학보』 42(2000b), 43-44쪽.

43) 『三國遺事』, 第四脫解王. “登吐含山上作石塚. 留七日. 望城中可居之地. 見一峰如三日月. 勢可久之地. 乃下尋之. 卽瓠公宅也.”

44) 서유구 저, 안대희 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돌베개, 2006), 100쪽.

며, 수는 물에 관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구별하여 사람의 운명과 대응시키는 관념이 풍수사상이다.

풍수의 기본 원리는 도참사상과 결합하여 깊은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도참사상 역시 음양오행설에 기초를 둔 것이다. 도참이란 증후, 전조 또는 신화 등의 뜻을 가진 말로서 장차 닥쳐올 길흉화복을 예언·암시하거나 약속하는 신비적·미신적 성격이 짙은 사상체계로서 풍수지리설과 결합하여 정치, 사회 및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45)</sup>

주거에서 풍수사상이 적용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집터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풍수상으로 좋은 집터란 땅속으로 흘러 다니는 생기가 모여 있어 인간에게 감응(感應)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로서, 터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복락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집을 짓는 시기와 과정도 풍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집주인이 집 지을 운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운이 닿지 않는 해에 집을 지으면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믿었고, 집 짓는 과정상의 중요한 날도 풍수에 따라 정하였다. 이와 같이 시기를 택일하여 각 건축과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의례도 행해졌다.

그러나 온전한 명당은 그리 많지 않고 만나기도 어렵다. 그래서 선조들은 균형과 조화를 갖춘 명당만을 찾아서 쓰는 이른바 중국적 이론풍수 대신에 땅의 결점을 보충하여 이용하는 한국적 비보풍수(裨補風水)를 행해왔다. 이는 지모신(地母神) 격인 땅이 명당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그곳을 보완하여 명당 터로 삼는 방식이다. 이러한 비보풍수에는 지세의 약점이나 흠결을 보충·보완하여 기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독거리는 소응책(所應策)과 지나친 기운을 눌러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염승책(厭勝策) 또는 압승책(壓勝策)이 있다.<sup>46)</sup> 비보란 글자 그대로 '도와서 모자람을 채움'이라는 의미이다. 즉, 동아시아에는 주거지의 자연환경을 개선할 때 서양의 자연지배 사상과는 상대적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지리적 조건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상적 환경을 이루려는 독특한 지리사상 및 문화전통이 있었으니, 이것을 '비보'라고 한다.<sup>47)</sup>

45) 박경안, 「고려시대 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 - 토지관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5(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1), 18-24쪽;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민음사, 1998).

46) 김의숙, 「비보풍수 연구」, 『강원민속학』 17, 강원도민속학회(2003), 105-1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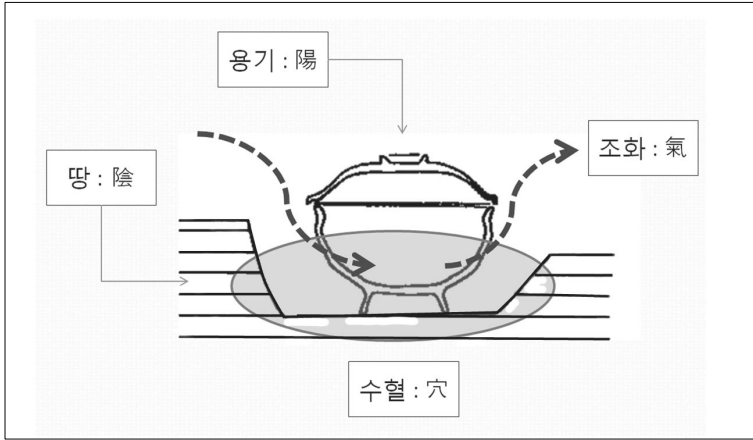


그림2-지진구와 음양설의 관계 도식화

건축의례 중 한 가지인 지진구의 매납행위는 풍수사상 중 비보풍수와 함께 기본 개념인 음양오행설과 기(氣), 혈(穴)과 관련이 있다. 그림2는 그 개념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진구와 음양설과의 관계를 가지는 지진유구는 대부분 그 대상이 되는 땅에 별도의 구덩이를 판 후 지진구를 매납하는 형태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땅이라는 장소에 구덩이를 파는 행위 자체가 ‘혈’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는 지진구 매납에 담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념이다.

먼저 음양설에 의하면 하늘은 양, 땅은 음을 상징한다. 음양설은 이 세상 인간사와 모든 자연만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현상을 음양, 두 가지 원리로 규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구덩이로 표현된 혈은 기가 모이거나 담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혈은 생기(生氣)가 뭉쳐진 곳으로 지중(地中)에서 음양이 배합되어, 산·수의 정기(精氣)가 응집된 곳으로 여겨진다.<sup>48)</sup> 마지막으로 지진구는 대부분 둥근 형태의 용기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음양설의 양을 상징하는 것이다. 음을 상징하는 땅속에 양을 상징하는 지진구를 집어넣는 행위 그 자체가 음양의 조화를 만들어서 기가 흐르게 하는 것이다. 기란 자연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로, 양기와 음기를 말하는데, 양기는 하늘에서 발생하는 천기(天氣)와 같고, 음기는

47) 김곤, 「全州地域 裨補風水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 6-7쪽.

48) 윤태중, 「風水地理學의 穴의 四象에 關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1쪽.



땅에서 방출되는 지기(地氣)이다. 이러한 양기와 음기를 조합하여 기를 흐르게 하는 것이 지진구 매납행위의 목적이다. 곧, 땅은 음양설에 입각하여 음을 상징하고 수혈을 파는 행위으로써 혈을 생성한 후에, 지진구를 매납함으로써 음양을 조화시켜 기의 흐름이 활달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취락지역의 주민들은 자연적으로 완벽하게 구비된 길지가 아니더라도, 오래전부터 자연에 대한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자연의 기운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헤아려서 풍수상 결함이 있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보완하여 완전한 지리적 환경을 만들어, 인간의 삶에 적합하게 생명력을 보완한다는 개념에서 비보풍수론을 발전시켰다.<sup>49)</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진의례 중 한 가지 형태인 지진구의 매납은 풍수의 목적인 지중에 흘러 다니는 생기를 얻어 감응을 받음으로써 피흉취길(避凶聚吉)할 수 있는 진혈(眞穴)을 만들어내기 위해 행해진 의례라 할 수 있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건물지에서 출토된 지진유구 및 지진구를 통하여 지진의례의 제 유형과 내용·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맺음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지진구는 농경생활의 시작으로 정주(定住)하게 된 신석기시대부터 주거지에서 나타난다.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에는 주로 기둥의 아랫부분에 토기 등을 놓았던 것이 확인된다. 주혈의 내부나 초석 아래에서 출토된 토기편 중에는 불에 그을리거나 인위적으로 파손시킨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예들은 시원적 형태의 지진유구·유물이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건축과 관련된 지진구의 출토 양상을 통하여 건축의례의 제 유형과 그 변천과정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건축의례는 건축공정 단계와 매납 위치에 따라서 기초시설, 기단, 적심, 중정, 담장과 문지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그리고 지진유구·유물에서 나타나는 지진의례의 특징들을 검토하고 문헌자료와의 대비를

49)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민속원, 2004), 70쪽.

통하여 단계별 지진구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먼저 지진구의 매납 양상은 I-V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지진구의 존속 시기에 대한 편년 결과와 비교하여 그 변화 양상과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I 유형에서 III유형으로 점차 전환되는 것은 건축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V유형은 일정한 시점에 새롭게 등장한 형식으로 당시에 유행하던 사상과 관념이 반영된 결과로 나타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I·II·III·IV 유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반면에, V유형은 전 시기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유형은 지진구가 건물의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는 경계에 매납된 것으로 보아, 내부 공간을 외부와 구분되는 신성하고 중요한 장소로 여긴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른 시기부터 확인된다.

지진구의 매납방법 중 ‘+’자 형태로 매납되는 것은 사방위(四方位)와 중앙을 의미하는 오행설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 유형의 지진의례는 민간 신앙 및 풍수지리설, 도참사상이 조화롭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지진용기로 사용된 용기류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지진용기들은 해당 시기에 널리 사용하던 일상생활 용기가 대용(代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진의례는 대부분 공적 의례가 아닌 사적 의례로 행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의례를 위한 별도의 특수 용기 제작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진용기의 보호 덮개로 사용된 여러 가지 기종을 분석한 결과, 그중 중층으로 덮개가 사용된 것과 특히 기와가 사용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아 용기와 덮개 자체가 건물과 지붕을 형상화하였을 가능성이 타진되었다. 또한 지진구 중에는 구연부가 훼손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진의례에 봉납된 내용물의 격납을 위한 것과 의례과정 중에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것 등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진구의 내용물로는 황칠이나 천석·숯과 같이 건축의 부재로 사용되는 것이나, 수은·유리구슬·견과류 등과 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 매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내용물은 건물의 영안(永安)이나 건물에서 지내는 사람의 무사안녕(無事安寧)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상위계층 사람들만 지닐 수 있는 물품들이 사용된 경우와 함께, 쌀이나 보리와 같은 곡류, 견과류 등 일반 사람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 사용된 경우도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건물을 사용한 사람들의 계층이나 위상에 따라 내용물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시기별·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내용물이 확인된 수가 많지 않고, 건물의 정확한 용도나 성격이 파악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각 계층이나 지역별·시기별 내용물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된 후에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진구에 반영된 사상·관념적 배경으로 풍수지리설·비보풍수·음양오행사상, 도참설이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진구의 매납은 음양으로 나타나는 땅과 하늘의 기운을 한 곳으로 응집시키는 혈(穴)을 생성하며, 이로서 기(氣)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로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물은 많은 중수와 재건이 이루어지며 사용되기 때문에 건물지에서 지진유구의 정확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개 지면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잔존유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당시의 의례 및 생활상을 살피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건물지 내·외부의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에 의도적으로 매납된 지진구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행하였던 지진의례의 단계를 파악하고 각 단계별로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사상과 정신적인 부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물의 출토 양상과 건물지의 관계가 명확한 자료들이 많지 않아 분석과정과 결과 도출에 많은 문제점과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분석대상의 범위가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여 핵심이 희석된 경향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진구의 변화 양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특정 시기나 지역보다는 지진의례와 관련된 지진구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건물지의 전모가 드러난 유적·유구의 조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진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출토 위치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분석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건물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와 관련된 자료가 축적되면 각 시대별·지역별로 세분화된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가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高麗史』.  
『備邊司謄錄』.  
『三國史記』.  
『三國遺事』.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柳僖, 『物名攷』.  
崔永年, 『海東竹枝』.  
許浚, 『東醫寶鑑』.  
王欽若·楊億, 『冊府元龜』.  
李時珍, 『本草綱目』.
-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慶南考古學研究所, 『泗川 梨琴洞 遺蹟』. 2003.  
권오영, 「성스러운 우물의 제사 - 풍납토성 경당지구 206호 유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8, 211-241쪽.  
권중남, 「성조가에 나타난 전통주택건축의 내용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89.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1年度 新羅王京遺蹟 發掘調査」. 『年報』 2호, 1992.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부지내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박물관 학술  
조사보고 제15책, 2002.  
國立文化財研究所, 『한국의 가정신앙: 경기도 편』. 2005.  
\_\_\_\_\_, 『한국의 가정신앙: 강원도 편』. 2006a.  
\_\_\_\_\_,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남도 편』. 2006b.  
\_\_\_\_\_,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북도 편』. 2006c.  
\_\_\_\_\_, 『江華 高麗王陵』. 2007a.  
\_\_\_\_\_,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남도 편』. 2007b.  
\_\_\_\_\_,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북도 편』. 2007c.  
\_\_\_\_\_, 『한국의 가정신앙: 제주도 편』. 2007d.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2011.  
국립부여박물관, 『부여구룡우회도로 사업구간 내 부여 논치 제사유적』. 국립부여  
박물관 유적조사 보고서 제12책, 2007.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거례와 함께한 쌀 -도작문화 3000년-』. 2000.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 2호선 수증발굴조사 보고서』, 2011.
- 김곤, 「全州地域 裨補風水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길식, 「지진구(地鎮具)와 국토개발」. 『龍仁春秋』, 2012. 5.
- 김명자, 「경기 지역의 터주신앙」. 『역사민속학』 9,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169-190쪽.
- 김성배, 「한국성조가의 연구」.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13집, 1974, 49-81쪽.
-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도서출판동녘, 2009.
- 김의숙, 「비보풍수 연구」. 『강원민속학』 17, 강원도민속학회, 2003.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慶州 皇南洞 第98號古墳(南墳)發掘略報告』. 1976.
-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南墳)』. 1994.
- 민덕식, 「發掘調査된 祭祀用 模造馬에 대한 分析」. 『사학연구』 제66호, 한국사학회, 2002, 1-48쪽.
- \_\_\_\_\_, 「發掘調査資料로 본 百濟時代의 祭祀遺蹟」. 『사학연구』 제71호, 한국사학회, 2003, 1-76쪽.
- 박경안, 「고려시대 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 - 토지관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5,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1, 5-38쪽.
- 백중오, 「韓國古代瓦當의 毀棄樣相 檢討」. 『한국사학보』 제43호, 고려사학회, 2011, 7-36쪽.
- 서유구 저, 안대희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 들베개, 2006.
-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93.
- A. 반 겐넵 저, 전경수 역, 『통과의례 -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후까지』. 을유문화사, 1985.
- 유혜선, 「3. 유개합 내부 잔류물질 분석」. 『慶州 皇南洞 大形建物址 - 皇南洞 123-2 番地 遺蹟-』,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총서 53, 2009, 81-85쪽.
- 윤원태, 『한국의 전통 초가』. 재원, 1998.
- 윤태중, 「風水地理學의 穴의 四象에 關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李相吉, 「靑銅器時代 儀禮에 關한 考古學的 研究」.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a.
- \_\_\_\_\_, 「靑銅器 埋納의 性格과 意味: 馬山 加浦洞遺蹟 報告를 檢하여」. 『한국고고학보』 42호, 2000b, 23-55쪽.
- 이영진, 「주거민속을 통해 본 주거공간의 영역화」. 『비교민속학』 제32집, 비교민속학회, 2006, 73-87쪽.
- 李尹慧, 「한반도 중남부 지역 출토 儀禮用 模造馬에 關한 고고학적 연구」. 仁荷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1.

- 李應熙·李重雨, 「東洋思想의 中心性을 통하여 본 傳統住居의 마당空間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지』 79, 대한건축학회, 1995, 59-71쪽.
- 忠南大學校博物館, 『大田上書洞遺蹟』, 忠南大學校 博物館叢書 第29輯, 2006.
-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 민속원, 2004.
-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8.
- 하승철, 「IV. 고찰」. 『거제 장목 고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 국 문 요 약

지진구(地鎮具)는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낼 때, 또는 농경지나 무덤 등을 만들 때 땅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묻는 의례용 유물이다. 이러한 지진구에 대하여 그동안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기에 한정되었으며, 지진구로 사용된 유물의 변화 양상이나 매납방법·내용물의 변화 등에 대한 단편적인 지진구 자료 그 자체에 대한 검토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건물지 발굴조사의 증가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시기의 건축물과 관련된 고고학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지진유구 및 지진구 자료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진구의 기종, 매납 위치 및 매납방법 등의 변화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거기에 반영된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건축과정에서 행해졌던 의례에 담긴 관념과 사상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진구 매납의 본래 목적과 의미라 할 수 있는 의례적 관점에 주안을 두고, 여러 건축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지진의례의 의미·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투고일** 2013. 6. 20.

**심사일** 2013. 7. 29.

**게재 확정일** 2013. 8. 5.

**주제어(keyword)** 지진구(Jijingu: the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지진의례(the ceremony for the spirits of the terrain), 건축의례(ceremony for construction), 음양오행설(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